

불친절 시내버스 골라낸다

분기마다 서비스 수준 평가 불량 업체 재정지원 패배

광주시는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내버스의 서비스·경영 평가를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4일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분기별로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달부터 시 자체평가와 외부위탁 등 분기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측정,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한다. 평가분야는 운전자의 친절도·차량 청결도·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등 도시민 서비스 분야와 난폭운전·급정차·무정차 통과·사고관리 등 안전운행 분야 등이다. 시는 또 업체 경영평가도 함께 실

시,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운송원가 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평가는 지난해 시에서 구축한 시내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과 경영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업체별로 평가해 개선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운송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도 실시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실시로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업체와 운전자들은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보수와 불이익을 엄격히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의 수익금 관리와 경영 등을 일부 맡는 대신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지난해 12월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상가 주민 등 100여명이 4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지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제공>

과일 껍질만 버려도 과태료 최고 10만원

깨끗한 무등산 가꾸기... 하반기부터 불법 현수막 등 강력 단속

올 하반기부터 무등산에서 과일 껍질·휴지·비닐봉지 등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처벌이 엄격해진다. 또 허가없이 무등산에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된다. 광주시는 4일 "주5일제 시행으로 무등산 탐방객이 늘면서 등산로 주변에 과일껍질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깨끗한 무등산 만들기=시는 무등산 등산객들의 과일껍질·휴지·플라스틱 물통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제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무등산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등산객들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버리고 있는 과일 껍질 등의 경우, 토양 산도에 악영향을 미쳐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법 27조를 적용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대처 할 방침이다. 시는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무등산에서 불을 피우 음식물을 끓여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에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상가주민들이 상시 감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28일부터 4월까지 5일 동안 원효사 지구와 중심사 지구 상가 주변 계곡 등에서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상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쓰레기는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과일껍질·비닐봉지·플라스틱 물통 등이 대부분이었고, 의자 등 쓸모없는 기구

도 많았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계도활동 후에 7월부터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무등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중심사와 원효사 지구 등에서 60점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폐기 처분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식당과 학원 선전물로 이들 지역에 어지럽게 내걸려있었다. 시는 앞으로 상업성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꼭 설치해야 할 공공성 광고물은 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 공원만큼은 더 이상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 모든 주소 내달 5일부터 바뀔다

시청 현재→ 서구 치평동 1200 내달→ 서구 내방로 410

광주시는 4일 도로이름과 건물 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주소표지판법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주소표지판은 도로의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번호는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구성된다. 광주시청은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으로 바뀐다. 시는 그러나 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한 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1999년에 착수, 3천508개 구간의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7천700여개의 도로명판과 12만8천여동의 건물에 번호판을 설치했다. 또 도로명 주소지도 99만부를 제작해 시내 주요기관, 배달업체 등에 배부했으며 앞으로 학생, 민방위대원, 부동산중개업자등 6천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 5천여개를 추가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호적,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문서 9천180여종에 대한 정보를 2011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슬로건 '고객감동 1등 광주'

광주시는 4일 고객만족(CS) 슬로건을 '고객감동으로 하나되는 1등광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6일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고객만족 슬로건 응모작 360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고객만족에 대한 시 직원들의 생각과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고객감동으로 하나되는 1등광주'를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시는 선정된 고객만족 슬로건을 전 자갈재 공문 표지와 각종 유인물, 현수막, 민원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대병원 학마을 봉사회 '이웃사랑'

동구 저소득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후원 협약

광주시 동구가 전대대학교 병원 '학마을 봉사회'(회장 박종춘)와 의료서비스 후원 협약을 맺고 연간 20명의 저소득 중증 환자의 치료에 나선다. 동구는 "학마을봉사회와 6월 의료서비스 후원협약을 맺고 동구청이 추천한 저소득 주민 5명에게 1인당 50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동구는 저소득 중증환자 가운데, 의료비의 본인 부담이 많은 주민을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전대대병원 학마을 봉사회는

전남대 병원 직원, 외부 특별회원 등 1천40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지역 최대 규모의 순수의료봉사단체다. 학마을 봉사회는 그동안 진료비 지원사업 뿐 아니라, 낙도와 사촌복지시설의 무료진료·사랑의 식당 급식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환자치료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공공의료 봉사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최강 게이머' 6월 광주에 온다

전국 'e-스포츠게임대회' 개최 유비쿼터스 신제품 전시회도

최첨단 유비쿼터스 신제품과 최강의 게이머들이 오는 6월 광주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광주시는 4일 "2007 광주정보통신전시회"와 'e-스포츠게임대회'를 6월 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3일간 열릴 '2007 광주정보통신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한국HP, 한국IBM 등 국내 IT기업과 함께 KTES, 에듀위즈 등 광주지역 유망 IT벤처기업 등 국내외의 100여개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또 유비쿼터스·이러닝·디지털콘텐츠 산업관·뉴미디어 콘텐츠 체험관·공공SW 전시관·정보보호관·비즈니스 지원관 등 250여개 부스가 설치된다. 이 기간 동안 광주u-city 구현전략 세미나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정보 제공, 전국 아마추어 댄스대회, 국내 유명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6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참가하는 e-스포츠 게임대회도 열린다. 게이머들은 스타크래프트·피파온라인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겨룬다. 특히 스타크래프트 부문은 e-스포츠협회와 공모하고, 우승자에게는 준프로 인증서가 주어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월드컵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상설법률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안심 18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무고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학교폭력 국민안심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대리 국민안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민안심 1366 여직원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민안심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민안심 1389	

여러분의 이웃, 광주그리병원 친자의 희망을 가꾸겠습니다

충공익, 투명한진료, 신진의료진, 첨단장비, 최첨단진료센터 운영

세상의 행복은 남은 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행복을 주려는 행위에 있습니다.

광주그리병원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구암동 134-1 (구암동 134-1번지)

TEL: 062-278-1111 FAX: 062-278-1111

한국 아델리움 단지내 상가분양

총 91세대 중 임도 2차 33-38-42평형 57세대

문의: (대) 062) 512-2788

분양: (대) 062) 512-2788

주최: 한국아델리움(주)